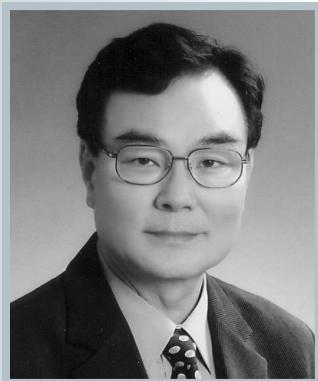


대한의학회 40년

– Leadership과 Contribution의 세월 –

Forty Years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History of Leadership and Contribution –



김 건 상

대한의학회장

Kun Sang Kim, MD

President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E-mail : kunskim@hanafos.com

J Korean Med Assoc 2006; 49(10): 864 - 6

Abstract

It has been forty years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t has started with the members of 34 academies in October 6, 1976 and now reaches to the number of 138. It takes the role of the main organization among medical academies has increasingly been growing in the volume and the business. We can say a lot of things that has lead the growth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but the most noticeable dynamic power of leading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 last 40 years is due to the people who has the strong leadership and a large contribution. Many staffs and the committees have dedicated their time to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record says the total of 691 medical scientists have served as the staff and the committee. We believe that it was impossible to execute so many works without their dedication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finances in last 40 years. Looking back upon the history of last 40 years, we sometime had necessity of the strong charisma of leadership and there is a right person who has met the needs of the times. His name is Munho Lee who served as a president in 22 years. It is singular in the history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We believe that we are so lucky that we has a person like him who was admired by a lot of people in spite of his long-term seizure of the position. Our medical science has advanced to the world-class level, which means it gives us an assignment different from the past. Our society of medical scientists now has to step out for the leading the medical society of the world.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increasing numbers of SCI dissertation. We also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people who can take that role of leaders.

대 한의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76년 10월 6일, 34개 학회를 회원으로 하여 출발한 분과학회협의회가 40년의 연륜을 더하면서 회원학회 138개의 의학관련 학회의 종주 단체로서 규모와 사업 그리고 역할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의 대한의학회가 된 것이다.

대한의학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면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40년간 대한의학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Leadership과 Contribution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8대 집행부와 17대 집행부에서 각각 100분이 넘는 임원과 위원이, 그리고 현재의 19대 집행부에서도 모두 80명의 임원과 위원이 대한의학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 40년을 통산하면 제19대 임·위원을 제외하고도 모두 691명의 의학자들이 임·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27명은 집행부 2대 이상, 헛수로 5년 이상을 봉사하였기에 공로장으로 치하드린 바 있다. 이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야 할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정 형편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믿는다. 그 중 어떤 분은 영문잡지 편집 업무만 10년 이상 해오신 분도 있고, 그러한 헌신이 빛을 발하여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는 SCI core journal로 당당하게 세계 의학계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지혜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회원 학회 분류체계를 완성하여 오늘의 의학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도 하였다. 선진국에도 대한의학회와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의 단체가 있고,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단체의 명칭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아도 우리처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회원학회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어서 임원 한 분의 역량

과 헌신이 이렇게 차별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현재 대한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회장의 경우 단임의 관례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40년을 거치면서 대한의학회의 틀이 잡히고, 위상이 정립되고 또 단체로서의 생존 능력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학회 138개의 임원과 대표를 거치는 동안 leadership 훈련이 잘 된 인재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도 3년 단임체제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40년을 되돌아 보면 강력한 charisma의 지도력이 필요한 적이 있었고 때마침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분이 있어서 22년이라는 유례없이 긴 세월 동안 회장을 역임한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도 이 분처럼 계속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의학회로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지도자 문제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좁게는 의료계가 편안하지 못한 형편이다. 2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한 고 이문호 명예회장이 변함없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훌륭할 뿐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요즈음 기업에서는 ROTC(학군단) 출신이 CEO로서 인기가 있다고 한다. 젊은 날 극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일선 소대에서 함양된 지도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ROTC 과정과 소대장 근무경력 이외에 별다른 지도자 양성과정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 씁쓸하기도 하다. 의사는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자질이 훌륭한 것에 대하여 반론을 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지도자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는 점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학회 운영에서, 개원의는 지역사

회 의사회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는다. 또 어렵게 길러진 인재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기전이 마땅한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훈련을 받지 못한 지도자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자기 고집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여 결국 국가, 사회, 단체에 큰 해를 끼친다고 한다.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의학회 창립 당시와 40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학 연구논문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전 세계 논문 중 국내 의학 논문이 차지하던 비중이 1988년에 0.17%인데 비하여 2003년에는 1.97%로 무려 18배의 성장을 하였고, 최근 15년 사이의 증가율은 전 세계 이 분야 증가율을 현저하게 앞서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국내 타 분야의 업적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공학이나 물리학의 연구 업적을 의학이 이미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 유수의 학술잡지에서 눈에 띄게 찾았던 우리 의학자에 대한 이중계재나 표절의 시비는 이미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의학계는 SCI 논문 편수의 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야 할 것이다. 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다. 우선 국내 학술단체의 능력을 배가하는 일이 중요하고 국

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수준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의학자들의 국제 학술단체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여 혁신적으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 언어의 장벽으로 실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도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젊은 의학자들이 해외에서의 경험을 늘려서 시야를 넓히는 일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학회 역량 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왔고 최근에 이르러 이를 임원 아카데미로 개편하여 지도자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학회 학술활동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서는 산하 단체인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임원아카데미에서 Global Learship Forum을 운영하여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고 대한의학회 회칙의 영문화, 대한의학회의 국제기구 가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다. 젊은 의학자의 양성과 국제화에 대하여 분위의 학상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신설하였고 젊은 과학도와 노벨상 수상자의 토론 모임인 Lindau Meeting of Young Scientists with Nobel Laureates에 대표를 선발하여 파견한 바 있으며 2007년 Meeting에도 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지도자 양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격언처럼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경주한다면 대한의학회 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서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의학계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5)